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6월 8일(금)

(음력 4월 25일)

Пятница

8 июня 2018 г.

№ 22(11678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 사업 설명회

시 : 2018. 06. 06 (수) 11:00-12:00

장소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 지난 6일(수)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제3차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 인요한 이사장, 국립중앙의료원 전숙하 사할린동포 사업 단장(왼쪽).

(이예식 기자 촬영)

북미정상회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3월8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대북체제 안전보장'이었다.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5월 7-8일 2차 북중정상회담, 5월24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 이후 어렵게 잡힌 북미정상회담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한국 측 노력이 돋보인 가운데 5월 26일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북측 통일각에서 이뤄지고, 27일에 판문점에서는 북미 실무회담이 시작되어 난항을 겪다가 협상이 호전되면서 6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북미정상회담 재개최를 발표하여 회담은 확정되었다.

6월6일 판문점에서는 북미 실무자들의 협상이 숨을 고르며 6번째 진행되는 가운데 마침내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장소와 시간이 발표되었다. 장소는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12일 오전 9시(한국시각 오전 10시, 사할린시각 정오(12시))에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미국의 샌더스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첫 회담'으로 언급하여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사 기자)

사할린주에서 40년 이상 근무한 연금자에게 분기마다 5000루블리 지급

얼마 전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베테랑, 연금자 등 노인층을 대표하는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만나 사할린주에서 40년 이상 근무한 연금자들에게 올 7월 1일부터 분기마다 추가 보조금으로 5000루블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할린주에는 약 16만 명의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들을 위해 생활여건 개선, 건강 회복, 물질적 복지향상 등에 관한 여러 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노년층에게는 월별, 분기별, 연간, 그리고 명절 및 기념일 등 추가 보조금을 지불하며 최소생계비보다 더 적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주 예산에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고령층은 주택 관리비, 대륙 왕복 항공료, 대중교통비, 무료 의치, 휴양 및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주에서 베테랑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만남에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복지회관에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칸짜리 아파트 50세대, 식당, 진료센터, 약국, 체육관, 강당, 레저시설, 관리실 등을 갖춘 계획이다. 집밖에는 원에 활동을 위한 발, 활동적 휴식을 위한 작은 공간들, 체조기구, 공동 차량 4대를 위한 차고 등을 계획하고 있다. 사회복지부가 작성한 설계는 주 건축부에 전달되어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준공은 2020년 4분기로 계획되었다. 만남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스포츠여가센터 문제도 제안되었다.

(주정부 자료에서)

단신

사할린주, 9월 9일 단일 선거의 날

지난 6월 6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주 선거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제7기 사할린주두마 의원 보궐선거 문제를 심의했다. 현재로 제9선거구 의원석이 공석이다. 이 선거구에는 유즈노쿠릴스크 구역과 쿠릴스크 구역, 그리고 코르사코프 구역 일부가 포함돼 있다. 2017년 9월에는 이 선거구의 의원으로 세르게이 포돌란이 선출되었지만 11월에 사임했다.

보궐선거는 9월 9일 단일 선거일에 치르기로 했다. 주두마의원 후보 신청 접수는 6월 9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9월 9일에는 구역의회 의원선거가 11개 지방자치체(오하,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티몹스코예, 스미르니흐, 우글레고르스크, 마카로브, 돌린스크, 아니와, 홈스크, 쿠릴스크와 유즈노쿠릴스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 캠페인은 6월 6일에 시작된다고 전했다.

프랑스 대사 사할린 방문

6월 5일(화) 사할린을 방문한 주러시아 프랑스대사관의 실비 베르만 대사가 6일(수) 프랑스-러시아 상공회의소 회원들과 함께 사할린주정부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프랑스-러시아 상공회의소 대표단 중에는 건설 분야, 의약품 제조회사, 전기장비생산회사 등의 대표들이다.

외국손님들을 환영한 주 정부 부수상 안톤 자이체브는 사할린주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라 소개하며, 지역 투자 매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할린주에는 3 개의 선도개발구역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관광 활성화를 이룬 <고르니 위스두흐>스포츠관광단지다.

실비 베르만 대사는 이번 방문에서 대표단 단원들이 공동활동의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표명했다.

베르만 대사는 올해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할 예정으로 포럼장에서도 사할린과의 협력문제를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프랑스-러시아 상공회의소 파벨 신스키 사무총장도 상공회의소는 앞으로 사할린주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사할린에 머무는 며칠 동안 대표단은 섬지역의 기업인들, 정부 해당 부서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고르니 위스두흐>스키장을 비롯한 여러 관광시설을 견학했다.

주두마 의장 안드레이 하포츠킨,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장 받아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주지사는 안드레이 하포츠킨 사할린주두마 의장에게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서명한 감사장을 수여했다. 감사장에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 준비진행 활동에 적극적 참여한 데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 시 안드레이 하포츠킨은 <예지나야 러시아> 당 사할린지부 서기를 맡으면서 사할린 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후보 선거 캠페인의 지도를 담당했다.

새고려신문

2018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2017년에 2차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사업>으로 사할린 동포 약 50명이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검진과 진료를 받았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사할린주한인회, 주노인회와 주이산가족협회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측에 계속 사할린 잔류 한인 1세의 검진 요청을 해왔다. 이로써 현재 한국 적십자사는 일시모국 방문 시 사할린 동포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2년 전부터는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사할린 1세 어르신 초청진료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 추진에 직접 나선 국제보건의료재단 인요한 이사장은 사할린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해 많은 사업을 해왔다.

사할린 동포에 관심이 많은 인요한 이사장은 지난 6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2층에서 진행된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사업 설명회>에도 직접 참여했다.

환영사를 하면서 그는 사할린 동포들의 아픈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있고 일본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이 전쟁에 참여한 인 이사장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통해 직접 듣기도 했다고 했다. 미국 출신인 그는 "저는 좀 다르게 생긴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이 한국에서 1895년부터 120여년을 살아왔습니다"라고 하여 이날 모인 30여 명 어르신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인 이사장은 "많이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검진프로그램을 만들

진료 희망자 26명 6월 14일 한국으로 출국

한인문화센터에서 제 3차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사업 설명회> 열어

고 작년에는 약 50명이 서울을 왔다갔습니다... 제가 서울에 돌아와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1세뿐만 아니라 2, 3세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사할린 동포들의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했다.

사할린 동포 초청진료사업을 주관하는 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이 기관은 질병 없는 세상, 건강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2006년 4월 8일 보건복지 산하 보건의료지원 전문 기구이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상생하는 개발협력 파트너, 인도적 보건의료지원 파트너,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 보건의료 인재양성 파트너,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 파트너로서 의료보험에 공공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보건의료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해외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독거노인 요양원 <아이랑>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사할린 어르신들은 이와 같은 소개정보를 이날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재단은 사할린사업과 관련 사할린 1세들에게 진료비, 항공권과 숙박비, 그리고 동반가족 보호자에게도 항공권과 숙박식을 제공한다. 재단 측에서는 이번에 의료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1세들은 6월 14일 서울에 입국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실질적 진료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관으로서 제3차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의 진료도 여기에서 이뤄진다. 의료원 측 전속하 단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장이며 국제보건의료연구부장, 정형외과 과장이다. 전 단장은 매번 설명회로 사할린을 3번째 찾았다.

전 단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소개하면서 "병원은 6·25전쟁 이후에 스칸디나비아 3국과 국제연합에서 지원하여 어려운 한국을 도와주면서 만들어진 병원"이라며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옆집 어르신들을 처럼 친근합니다."라고 표명했다.

전속하 단장은 검진, 진료, 입원사항,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연세가 많으신 걸 고려해서 기본적인 검사 외에 뇌,



심장 등 여러 분야의 정밀 검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의료원에 있는 각 진료과와 협진을 통해서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진료기간은 1주일부터 검진 결과에 따라 최대 1개월이며 주치의 의견에 따라서 수술이나 시술을 할 계획이고, 다시 사할린에 돌아와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검진결과를 러시아어로 번역해 나중에 사할린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 10-11월에 한국 전문가들이 사할린 현지에서 한국에서 치료 받은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에 진료 희망자 31명 중에서 의료원 측은 상담을 통해 26명만 선정했다고 알렸다.

두 차례 초청진료 사업으로

암수술, 암 뇌시경 수술, 백내장안과 수술을 비롯해 여러 수술과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청진료 사업은 사할린주한인회(회장 박순옥)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한인회가 진료희망자 명단, 수집한 검진진단서와 여권사본을 재단, 의료기관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만 아니라 200여 명의 고령의 진료희망자들이 하루 속히 한국에서 검진과 진료를 받도록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진료비용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

작년에 사할린의 어르신들은 2차에 걸쳐 한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취재: 글 / 배순신, 사진 / 이예식)

이 모 저 모

<사할린 - '아시아의 아이들' 제 1 회 국제 동계스포츠대회의 중심지>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자 선정

지난 6월 1일 제1회<아시아 아이들> 국제동계스포츠대회 진행 조직위원회가 개최한 그림 그리기 대회에 마지막 참가작품들이 접수되었다. 사할린의 소년·소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한 가운데 몇몇 아동은 동시에 몇 개의 작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는 총182개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출품 지역들 또한 우글레고르스크 · 돌린스크 · 아니와 · 알렉산드로브스크사할린스크 · 코르사코브 ·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으로 상기할 만하다. 가장 어린 참가자는 6세이고, 가장 높은 연령의 참가자는 18세이다. 6월 초에는 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심사위원들은 대회가 추구하는 조건과 요구에 걸맞는 작품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들을 공개하여 사할린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블라디미르 마크시모브 <아시아 아이들>진행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원래 우승한 작품들은 시내 광고 게시판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승자들에게는 조직위원회가 상장과 함께 기념품과 증서를 수여하고 증서로 2019년 2월에 개최될 동계스포츠대회에 온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사할린 - '아시아의 아이들' 제1회 국제동계스포츠대회의 중심지" 그림 그리기대회는 주 스포츠부와 교육부가 주최했다. 대회에 사할린주 내 일반학교들은 학생들의 참가를 독려했다고 제1회 국제동계스포츠대회 조직위원회 홍보실이 전했다.

Островитяне определяют победителя конкурса рисунков "Сахалин — столица I зимних игр "Дети Азии"
1 июня в дирекцию I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поступили последние работы конкурса. Островные мальчишки и девчонки подошли к заданию ответственно. Некоторые ребята прислали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рисунков.

Всего в конкурсе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182 рисунка. Их география тоже впечатляет: Углегорск, Долинск, Анива,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Корсак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мому маленькому участнику, судя по подписи, шесть лет. Самому старшему — 18. В начале июня состоится заседание членов жюри. Им предстоит выбрать работы, которы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условиям и требованиям положения. Затем их представят на голосование. Сахалинц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берут победителя.

— Изначально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том, что рисунки, которые победили, будут размещены на баннерах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 объясн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дирекции игр Владимир Максимов .

Помимо диплома участника,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ат памятные призы от дирекции и сертификат. Он позволит приехать всей семьей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в феврале 2019 года.

Конкурс рисунков "Сахалин — столица I зимних МСИ "Дети Азии" организован дирекцией игр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К участию допускались учащиес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регион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дирекции I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사할린 청년들 모스크바 자원봉사자 축제에 참가

모스크바에서는 자원봉사자 대축제가 펼쳐졌다. 이 행사에 참여한 러시아 연방 전 행정구역의 대표자들을 위해 독특하고, 유익한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축제의 행사장이 마련되었다.

사할린주를 '2018년 사할린주 기능인대회'자원봉사조직위원회 대표이자 세계 자원봉사자 순위 500명 안에 든 자원봉사자, "오스트로와" 포럼행사 조직위원 등 총 8 명이 대표했다.

이들은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봉사의 날 행사에 참가해 의료기관 지역에 나무와 꽃 심기를 돕고, 도색, 환자들과의 교제도 나누었다.

사할린의 청년들은 붉은광장에서 열린 연중 도서

축제에 참가하고 러시아 연합자원봉사자들센터의 인재센터, '오늘의 러시아 ' 국제언론사, 모스크바 동물원, '메일 루' 본사 방문 등 주요 행사에 참가했다.

주요 축제의 행사가 진행되는 날 소콜공원 부근에서는 전 지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공연이 펼쳐졌고, 대규모 강당이 있어서 자원봉사자 해의 홍보대사들이 강연하고, 러시아의 스타들이 춤과 노래 공연을 벌였다고 사할린주 청년정책 및 스포츠관광부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цы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фестиваля добровольцев в Москве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ся крупнейший фестиваль волонтеров.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для которых были подготовлены уникальные и полезные культур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 социальных площадки, с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е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едставили восемь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среди которых представили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штаба волонтерской программы World Skills Russia — 2018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и топ-500 волонтеров мира, а также координаторы волонтер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др.

Ребят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дня добрых дел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оказали помощь с посадкой цветов и деревь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покраской объектов, а также пообщались с пациентами.

Сахалинцы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ежегодном книжном фестивале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посетили ресурсный центр Ассоциации волонтерских центров России, МИА "Россия сегодня", Московский зоопарк, офис Mail.Ru и другие круп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главный день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а Сокольники прошел большой концерт для добровольце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а также расположились крупнейшие лектории для волонтеров, а перед участниками фестиваля выступили звезды российской эстрады и послы Года добровольца (волонтер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8면에 계속)

한국방문 체험수기 시상 겸 새고려신문 창간일 기념행사

2017년 10월에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을 방문한 남녀노소 중 사할린 출신이면 누구나 참가할 자격이 되었다. 글의 종류와 언어는 무관했다.

공모기간이 3월 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지난 6월 1일(금) 본사는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전> 우수작 발표·시상식을 가졌다. 본사 배 워토리아 사장은 체험수기 수상자 이름을 발표하고 이날 새고려신문 창간 69주년이어서 이 자리에서 신문사 직원들을 축하했다.

박혜신, 장세복, 배 워토리아 본사 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최우수상은 선정되지 않았다.

우수상

1. 광 올라/ "제 외국 생활"(현재 모스크바 거주)
2. 김수란(알렉산드라)/ 러시아어로 쓴 여행기 (사할린 출신 동포, 현재 이르쿠츠크 시민)

장려상

1. 전채련/ "그 은혜를 언제까지나 잊지 못할 겁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2. 림복희 "불효자는 옴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수상작들은 모두 새고려신문에 실을 계획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 중에서 전채련 (87세) 할머니만이 참석할 수 있었다. 전채련 할머니는 이날 새고려신문사 창간일을 축하하며 직원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경제상 어려운 사회에서 우리 민족지를 이때까지 유지해 사업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다."며 "신문사의 빛나는 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전채련 할머니는 어린시절과 사할린에서 가족들이 겪은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고, 신문사 직원들에게는 많은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사실 계속 지원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한민족지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5개국 인문학자 동북아해역 교류 학술대회 가져

지난 1일~2일간 부산 대연동 캠퍼스 미래관과 인문사회·경영관에서 제1회 동북아해역과 인문네트워크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고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부경대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단장 손동주)이 개최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 5개국 연구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해역 인문네트워크의 근대적 계기와 기반'을 주제로 해역 연구의 이론과 근대 동북아해역 교류 기반, 사례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학술대회 기간 중국 사면대학 양귀전 교수의 기조강연 '동북아 해양 공간과 인문 특색'을 비롯해 7개 분야에서 22개의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건국대, 목포대, 인하대, 한국해양대,

한국학중앙연구원, 상하이교통대, 상하이사범대, 중국해양대, 간사이대, 간사이외국어대, 미야기교육대, 사할린국립대, 대만 중국문화대에서 온

연구자들이 주제발표를 통해 동북아 해역의 교류, 접촉, 변용양상을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의 7개 분과는 △동북아해역 연구의 이론과 방법 △동북아해역 갈등과 교섭의

교류사 △근대 동북아해역 지식네트워크의 기반-상하이와 근대지식 △근대 동북아해역의 교류 기반-교통망, 도시, 사람 △동북아해역의 문화 교류 △동북아해역의 문화 접촉과 변용 △근대 동북아해역 지식네트워크의 기반-서양인의 동북아해역 경험, 인식, 표상 등이다.

러시아를 유일하게 대표한 사할린국립대 엘레나 이콘니코와는 19세기에 동북아 해역을 다녀간 러시아 작가들의 계몽활동에 대해 발표했다고 전해졌다.

(본사 기자)



Смены

1 смена:	30.06 - 06.07
2 смена:	07.07 - 13.07
3 смена:	14.07 - 20.07
4 смена:	21.07 - 27.07
5 смена:	28.07 - 03.08
6 смена:	04.08 - 10.08
7 смена:	11.08 - 17.08

ВОЗРАСТ ДЕТЕЙ: 12-18 ЛЕТ

Развлечения

море и пляж Хеундэ, обзорная экскурсия по Пусану и сити-квест по культурной деревне Камчхон, аквапарк и музей науки,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и корейские игры, K-POP марафон, викторины и дискотеки

Обучение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ИСАА при МГУ,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этикету и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мастерские по националь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Кореи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А САЙТЕ:

www.pusan-letto.com
pusan.letto@gmail.com
тел.: +82 10 6312 8191
тел.: +82 10 5964 0584

러시안
주니어
어학원

한국방문체험수기 장려상

불효자는 옴니다

언제 어디서 이 노래를 들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말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불러봐도 불러봐도 못오실 어머니'... 왜 살아계실 때 마주앉아 이 말 저말 나누지 않았을까? 왜 자주 가보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젊었을 때 언제나 바쁘고 미련했을까? 생각해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알고 싶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후회됩니다. 저의 어머니는 1907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외동딸로 집에서 호강하고 사셨던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오셔서 아이 구 남매를 낳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살았지요.

찬물도 안나오는 데서 물을 길어서 밥 해먹이고, 빨래해 입히고 밭에서 채소를 심었습니다. 해방 전에는 밤새도록 일본여자들의 옷을 재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책을 읽기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던 작은 도시에서 어디서 책을 구하셨는지..., 제 기억에는 어머니께서 가지셨던 공책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공책에 어머니는 심청전과 춘향전을 베껴쓰셨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하셨습니다. 오빠들을 공부시킬 때 옆에서 독학으로 글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가르치지 않았지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연이라도 친척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자주 라디오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쓰셨습니다. 편지가 일본으로 돌아서 남조선에 누군가에게 전달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도 어머니한테 가끔 편지를 쓰러 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나 깨나 조국을 그리워하셨습니다. 모두 다 친척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길이 열렸을 때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때까지 못살아오신 것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그리웠던 고향에 못가보시고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께서 인생의 꿈을 이루지 못하셨으니까요.

부모님께서 못가셨던 대신에 제가 1996년도 8월에 적십자사 덕에 일주일 동안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옛날 수도였던 경주도 가봤고 63빌딩,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구경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관광지과 자동차공장도 방문했습니다. 조국의 발전을 봤을 때 자랑스러웠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인생이 어땠을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랐으면 무엇이 됐을까?'란 생각도 했습니다.

그 다음 한국에 두 번 다녀왔는데도 또 가고 싶습니다.

2012년에 남편과 한국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마침 막내딸이 사할린에서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동서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사월 초에 한국은 가는 곳마다 벚꽃이 피어서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시택 부모님의 고향인 경상북도를 찾아갔지만 친척을 찾지 못했습니다. 딸은 지금 모스크바에서 한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아이하고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 어머니 생각이 자주 납니다.

(림복희)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отправятся на лечение в Корею 14 июня

6 июн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ось собрание по разъяснению программы «Лечени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е». Более тридцати пожилых людей смогли узнать подробнее об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из ус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фонд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глав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Ин Ен Ханом, а также специалистов Центра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центра РК.



Как известно, этот проект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фонд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лечение и диагностику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в медицинском центр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осуществить лечение смогли две группы пожилых людей с Сахалина (около 50 человек).

Лечение и диагностика, проезд, проживание и питание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1-го поколения по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бесплатны. Каждого пожилого человека будет сопровождать член семьи, которому также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ены бесплатные проезд, питание и проживание.

В этот раз комиссия с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отобрала для направления в Корею 26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отправятся в дорогу 14 июн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ложности лечения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в медицинском центре будет составлять от недели до месяца.

Партнером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в этом проекте являетс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ка неизвестно, будет ли в этом году отправлена на лечение еще одна группа сахалинцев, так как все зависит от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среди побывавших по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есть люди, которым сделали серьезные опер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по удалению раковых опухолей. Сделано немало операций по удалению катаракты и глаукомы, а также другие серьезные процедуры.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Вопросы акватори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гуманитарных сообществ обсуждали в Пусане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укён (г. Пусан) состоялась 1-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егион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атской акватории и гуманитарные сообщества». Собравшиеся на два дня в Пусане ученые из Южной Кореи, Китая, Японии и России размышляли об исторических, 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их и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вопросах современной науки.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в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русской и зарубежной литера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выступившая с докладом о посещавших акватор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усских писателей XIX века. В выступлении Елены Иконниковой была освещена не только деятельность русских просветителей, знакомивших отечественных и зарубежных читателей с морскими простора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о и описано путешествие на «Фрегате "Паллада"» Ивана Гончарова, около трех недель побывавшего у побережь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 итогам конференции издан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ключивший в себя развернутые доклады ученых на англий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итайском и японском языках.

(Наш корр.)

Послевоенный гражданский статус корейцев, колонизированных Японией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Доклад представлен на конферен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етроспектива и перспектива», май 2018 г.)

А.Т. Кузин,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21)

Динамику числ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гражданско-правовому признаку 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в следующе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Первое. Количественное соотношение корейцев —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бывших японских подданных в течение первых пяти послевоенных лет имело устойчивую тенденцию к росту, достигнув своего максимума 30,3 тыс. в 1951 г. (ГИАСО.Ф.3), а затем обнаружился обратный процесс, и их численность к 1989 г. сократилась до 2,7 тыс. человек (ГИАСО.Ф.3), или в 11,2 раза.

Второе. Первый массовый приток наблюдался в 1946-1949 гг., когда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ля работы в сахалинской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было завезено 26 065 рабочих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ГИАСО.Ф.3).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срока действия трудовых договоров происходил обратный отток и к началу 1950-х гг.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окинуло около 30 тыс. корейцев. В их числе были и бывшие японские подданные,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ли гражданство КНДР, выезжали туда в надежде добраться на свою родину —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Третье. В 1952 г. произошло явление, когда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впервые выделилась группа, получившая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превысив в 1989 г. 35,0 тыс. человек при одновременном резком сокращении численности граждан КНДР и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Абсолютный максимум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42,9 тыс. человек) приходился на 1951 г., когда наблюдался наибольший естественный прирост и затормозился процесс возвращения в КНДР семей завербованны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В 1990-е год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выми российскими законами начался более глубокий процесс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правосубъект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сняты вс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передвижение и на выбор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 установлены облегченные правила получения видов на жительство с более длительными сроками действия;
- гарантируются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ь частной жизни, право свободно выбирать вид трудовой занятости, вступать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союзы, создавать националь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абот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бровольных обществ;
- организуются встречи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 которой налажены и расширяются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Однако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изъятия до сих пор не позволяют корейцам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 находиться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ли муниципальной службе;
- замещать должности в составе экипажей российских морских и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 избирать и быть избранными в 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бщероссийских референдумах,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и движений (Кузин А.Т.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н. 3).

В порядке заключения сформулируем следующие выводы.

Первое. Коре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группа Сахалина не однозначна по своему составу, поскольку складывалась из выходцев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Японии,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Приморского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ев и обрусевших уроженце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торо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несколько раз менять свой статус, находясь то в подданстве

Кореи и Японии, то в гражданстве КНДР, СССР и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А то и вовсе оставаясь без вся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Третье. Выбор гражданства во многом предопределил и ориентац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различ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РФ,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КНДР, Япония.

И все же, несмотря на та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мы должны рассматриват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дной нации, единого народ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успешно интегрировались в российскую жизнь. Однако со временем ослабевает интегрирующая роль этнических признаков, а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мпонент всё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поглощается доминирующей обще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ой.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со временем трансформировался настолько, что, перешел из житейско-бытовых проблем в политико-правовую плоскость и стал частью вопроса о правах человека, образовав сложный клубок современ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жизни.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епутатские фракции, организаци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и правозащитн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нимают усилия для решения накопившихся пробл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егулярно проходя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Налажен научный обмен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уче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Нам хорошо известны работы уче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Донгук, Пе Джо,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лим, а также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х центров.

В изучение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историю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несомненно, внесет свой вклад и настоящая конференция.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СССР», принятый 23 мая 1990 г. (Ведомости Съезда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СССР и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23), положил начало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правов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гражданского статуса. Впервые устанавливалась норма, запрещающая лишать человека права на гражданство. Расторжение правовой связи между личностью и государством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только на основе взаимного согласия.

Новый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1 мая 2002 г. закрепил более гуманные принципы и правила, регулирующие вопросы гражданства, определив, что граждан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является единым и равным для всех, независимо от оснований его приобретения. Устанавливалось, что гражданин РФ не мог быть выслан за пределы России или выдан иностранному государству. Поощрялось также приобрет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РФ лицам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Труд и право, №7).

Все вопросы регламентировались в пользу детей, которые, независимо ни от как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становились граждан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ождению (**филиация**), если:

- а) оба родителя или единственный родитель имели гражданство РФ;
- б) один из родителей имел гражданство РФ, а другой являлся лицом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 в) один из родителей имел гражданство РФ, а другой являлся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ином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ребенок родился в РФ, либо если в ином случае он мог стать лицом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Российск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допуск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наличия двой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но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приобрет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не может служить основанием для прекращ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РФ.

По семейным и други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многи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ынуждены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ть за рубежом и, в частности, в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476 руб. 2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На местных выборах смогут проголосовать 43 миллиона избирателей

Сеул, 4 июня - ИА РУСКОР. Почти 43 миллиона южнокорейцев будут иметь право проголосовать на предстоящих выборах в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сообщили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В комиссии сказали, что она завершила составление списков избирателей на предстоящие мэрские и губернаторские выборы, назначенные на 13 июня.

Число избирателей составило 42 907 715 человек, на 3,9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около 41,3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на прошлых местных выборах четыре года назад.

Самую большую группу избирателей составили те, кому за 40 и за 50 лет. Они представляют более 40 процентов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Те, кому за 70, составили самую маленькую группу, их 12 процентов от всех избирателей.

Число избирателей, родившихся за рубежом, более чем удвоилось с 48 428 в 2014 году до 106 205 в этом году, что частично отражает рост южнокорейцев, вступающих в брак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упругами.

(ИА РУСКОР)

Компания Hyundai Motor передала автомобили для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FIFA 2018

Hyundai Motor осуществила передачу 530 автомобилей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FIFA 2018 в России.

Игроки, VIP-гости и арбитры будут передвигаться во время турнира на автомобилях Hyundai Santa Fe, Tucson и N-1.

Компания Hyundai Motor является официальным автомобильным партнером FIFA с 1999 года.

Ка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омпании, Hyundai Motor предоставила 530 автомобилей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о время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FIFA 2018 в России. Знаменательная церемония передачи, ставшая символом долгосроч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Hyundai Motor и FIFA, состоялась на московском стадионе «Лужники» 31 мая, в преддверии крупнейшего миров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события, объединяющего поклонников футбола со всего мира.

14 июня состоится открытие Чемпионата, где команды из 32 стран поборются за место в престижном финале,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15 июля.

(ИА РУСКОР)

Россия узнала Ким Чен Ына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ргей Лавров встретился с лидером КНДР

31 мая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ергей Лавров посетил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Пхеньян, где провел переговоры и был принят лидером КНДР Ким Чен Ыном. Помимо обсуждения серьез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эта встреча имеет и другое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 это первый раз, когд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оссии лично полноценно пообщался с главо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сточники в российском МИД, комментируя предстоящую поездку в Пхеньян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Ф, избегали однозначно утверждать, что Сергей Лавров точно сможет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лично с Ким Чен Ыном, но признавали, что такая встреча "назрела" и "была бы логичной". Ким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месяца уже успел дважды встретиться с лидерами Южной Кореи, Китая, планирует саммит с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идут слухи о встрече с японским премьером Синдзо Абэ, и только Россия до сих пор оставалась немного в стороне.

В итоге этот пробел был восполнен и Сергей Лавров был принят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ом.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иехавший после девяти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в Страну чужде, глава МИД России стал перв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России, который смог полноценно пообщаться с молодым лидером КНДР. Судя по реакции и постоянной улыбке на фотографиях официальной хроники, Ким тоже остался доволен "личным знакомством" с россиянами.

Министр Лавров передал Киму личное послание от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который пожелал успеха председателю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в крупных начинаниях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как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так и в целом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была обстановка мира, стабильно-

сти и процветания", - рассказал позже Лавров, комментируя содержание переговоров. Министр также передал приглашение для Кима посетить РФ. "Приезжайте, мы будем очень рады",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оссийского дипведомства.

Ким же попросил передать российскому президенту "теплый привет",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нацелен на расшир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Москвой. "Ваш визит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готовности России расширять и углублять связи с КНДР", - отметил Ким Чен Ын.

Если с главой КНДР Сергей Лавров обсуждал скорее "обще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и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знакомился с лидером важной для России страны, то с коллегой -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Ли Ён Хо - беседа шла уже о конкретных деталях, текущей ситуации и прочих "тактических" вопросах. В целом задачей Сергея Лаврова было услышать, что КНДР собирается делать, как выстраивать свою политику с учетом грядущей встречи Ким Чен Ына с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Была также обсуждена и проблема ядерного разоружения КНДР и гарант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хеньяну. Сергей Лавров поддержал подход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оторая исходит и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этапного решения этой сложной проблемы, когда все уступки со стороны Пхеньяна должны компенсироваться постепенной отме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анкций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гарант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НДР.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оссийского МИД, способы продвижения на пути решения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завися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т "искусства переговорщика", добавив, что "за один присест" решить ядерный кризис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е получится.

К визиту российского министра в КНДР проявили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в

Сеуле и Вашингтоне, предложив свои версии того, что обсуждалось за закрытыми дверями и осталось "за скобками" официальн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х для прессы заявлений. По мнению начальника Отдела стратегии объединения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короля Сечжон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он Сон Чжана, Сергей Лавров обсуждал в том числе и конкретные вопросы ядерного разоружения КНДР. Южнокорейский эксперт отметил, что, возможно, обсуждался вопрос о перемещении ракетных и ядерных арсеналов КНДР в Россию в рамках процесса ядерного разоружения Пхеньяна. "Как мне видится, Россия вполне может приня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процессе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о перемещ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кет и ядерных боеголовок за рубеж.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хеньяна, передавать боеголовки и ракеты Соединенным Штатам в процессе разоружения может быть не очень целесообразно, а потому здесь Россия вполне может помочь", - сказал Чон.

Эксперт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выск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Лавров обсуждал конкретные детали личной встреч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Ким Чен Ына. "В ряде СМИ уже озвучили слухи о возможном трехстороннем саммите с участием лидеров России, Китая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роме того, официально заявлено, что Кима ждут в России. Потому логич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Сергей Лавров в Пхеньяне согласовывал именно вопросы подобных встреч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 рассказал Чон Сон Чжан.

Американские СМИ, комментируя визит Лаврова,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лис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 приглашении Ким Чен Ына в Россию и озвученном стремлении сторон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и развивать двусторонние связи.

(Олег Кириянов, РФ)

Генеральская комбинация
Ким Чен Ын сменил высшее воен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КНДР

Буквально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до встреч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оменял три самых главных фигуры в военном руководстве.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Ким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кануне отстраняет военных "ястребов", чтобы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страны с учетом ожидающихся результатов от переговоров с США.

Первое сообщение о перестановках среди генералов поступило еще 26 мая, когда СМИ КНДР в качестве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КНДР (ГПУР ВС КНДР) назвали Ким Су Гиля, который сменил Ким Чжон Гака.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о властной иерархии КНДР руководитель ГПУР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лиятельным военным, стоя выше начальника Генштаба (военный № 2 КНДР) и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 3).

Однако, как выяснилос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решил на этом не останавли-

ватьс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о ссылкой на источники в местной разведке, заявили, что на днях поменяли и остальную пару генералов в главной "военной тройке". "По нашей информации, теперь сменили еще и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а также начальника Генштаба. Пост главы ГШ ВС КНДР, вместо Ли Мён Су, теперь занимает его бывший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 Ли Ён Гиль, а на должность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назначен Но Гван Чхоль, сменивший Пак Ён Сика. Он также до этого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ь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 процитирова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здания слова источника в разведке.

Позже информацию о смене в итоге сразу трех главных военных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дтвердили как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един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так 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ША.

В минобъединения такую массовую замену высших военных назвали "очень необычной".

Понятно, что данн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сразу же вызвали массу спекуляций по поводу их воз-

можной подоплеку и реальных причин. Эксперты выдвинули ряд версий, но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считают, что так или иначе это все имеет отношение к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му на 12 июня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саммиту в Сингапуре, а также к дальнейшим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планам по развитию КНДР.

"Новый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КНДР Но Гван Чхоль хорошо известен как "человек Ким Чен Ына, тогда как занявший пост главы Генштаба Ли Ён Гиль сравнительно молод, по меркам высшего эшелона вла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акже следует учитывать, что Но - занимал руководящие посты в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е, а также курировал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Назначение Но Гван Чхоля позволяет поручить лично преданному Ким Чен Ыну человеку как важный пост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так и военную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Ли Ён Гиль - э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моложение воен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ерестановки

директор Отдел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Хон Мин.

"Ким Чен Ын еще в апреле заявил о прекращении ракетно-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задача по созданию военного щита выполнена, а отныне все силы будут брошены на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Потому и следовало ожидать подобных перестановок, которые нужно понимать, как появление тех, кто согласен с новым курсом развития, когда влияние военных будет меньше...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в какой-то мере перестановки были спровоцированы и недавними несколькими необычными резкими движениями КНДР, когда они сначала предложили переговоры Сеулу, а потом сами же и отказались, под предлог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маневров. Затем Пхеньян вновь согласился на переговоры. Вполне может быть, что этих "ястребов" или тех, кто как-то не был согласен с новым курсом и поменяли", - пояснил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сотрудник Института оборо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РК. Он также добавил, что на саммите с Трампом от Ким Чен Ына ожидают серьезных уступок, вплоть до полного отказа от своей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а потому это могло не всем понравиться в военной верхушке, где и прошли перестановки.

В США, где подготовка к встрече с Ким Чен Ыном идет полным ходом, не стали официально пока ничего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чтобы не провоцировать лишний раз Пхеньян, но не связанные напрямую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ША эксперты в целом поддержали мнение южан. "Если Ким Чен Ы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ацелен на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ША, Южной Кореей, если он собирается, хотя бы частично, отказаться от своих ядерных арсеналов, то ему обязательно надо ограничивать влияние военных... Насколько видится, сейчас на три ключевых поста назначили тех людей, кто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с новым курсом и кто лично полностью верен Киму", - пояснил американский военный эксперт Кен Гаус.

(Олег Кириянов, РФ)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ится свой центр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Об этом было заявлено на заседании оргкомитета финала V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на острове с 8 по 12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по 62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компетенциям. Всего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свыше 3,5 тысяч человек.

Это важное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событие федерального масштаба. Регионы борются за то, чтобы та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именно на их территории. Сегодня потребность в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ах рабочих профессий крайне высока.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знакомятся с самыми совреме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во всех отраслях. Крайне важно и то, что в будущем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приобретаетс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чемпионата, останется в местны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что позволит готовить высококласс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д конкрет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работодателей.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ручил создать в России центры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и такой центр появится у нас в регионе как наследие чемпионат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 сообщ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бласти.

-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лучит от чемпионата колоссальную отдачу. Здесь останется сильная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ая база. Школьники, определившиеся с выбором профессии, смогут обучаться, не выезжая за пределы региона. Он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стажировку на самом лучшем современном оборудовании,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оюз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Роберт Уразов.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обедители отбороч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чемпионато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а также команды других стран. В список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по которым будут состязаться участники чемпионата, включены важные для экономик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омпетенции: сваро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толярное дело, гостиничный и ресторанный бизнес,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а также так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как: моторист, судовые машинист, электрик, рефмеханик.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включить в список "обслуживание авиатехники" и "сервис на воздушном транспорт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подготовлен проект решения о специ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поощрения призеров финал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или стажировка в компания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WorldSkills - это международное движение, объединяющее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Главная цель состязаний - повышение престижа рабочи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и развит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егодня участник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стемы являются 79 стран, одна из которых раз в два года проводит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В 2019 году его примет Россия - первенство пройдет в Казани.

Сахалинский кванториум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и развитию детского технопарк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тал финалист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роектный олимп»,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Аналит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траны. Он претендует на победу в номинации «Управление комплексными проектами - лучший проект года».

Напомним, кванториум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и в этом году. Учрежд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от 11 до 17 лет начало работать на базе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ехнопарк объединил шесть естественнонаучных и техниче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подготовки: «Робоквантум», «IT-квантум», «Промышленный дизайн», «Аэроквантум», «Гео-квантум», «Энерджиквантум».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здесь занимаются около 300 ребят. Процесс обучения творческий - школьники не просто получают теоретические знания, но и применяя их на практике, создавая различ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и устройства - от измерительных приборов до роботов и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последствии этот опыт поможет учащимся получить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на рынке труда инженерны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В последующие два года в регионе будут открыты еще дв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детского технопарка, которые разместятся на баз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дет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и гимназии №3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 Сахалинский опыт по созданию кванториума представляет для федеральных экспертов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В сжатые сроки - всего лишь за год - область смогла мобилизовать усилия и практически с нуля организовать работу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ового типа. Обучающиеся здесь ребята - это потенциальные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инженеры,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очень нужны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е только на Сахалине и по всей России, - отметила Ольга Курило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 Саха-

линский проект уже сегодня попал в число 17 лучших в стране. Желаю ему победы в финале.

- Этот результат важен для нас и характеризует качество командной работы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и в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х ему учреждениях, -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ра Щерби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Проектный олимп» проводится уже в пятый раз. Участвуют в нём федеральные, региональные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е им учреждения, госкорпорации, коммерческие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а также институты развития, использующие в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етоды проект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отметил юбилей

На расширенном заседании ученого совета, прошедшем 1 июня,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ластной власти.

Открыв двери в 1949 году как учи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СахГУ остается ведуще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Сегодня островной вуз - это современный многопрофильный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щийся университет XXI века, который предоставля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по естественнонаучным, педагогическим, гуманитарным и инженерно-техничес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Тысячи выпускников университета работают в компаниях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а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банковских структурах, налоговых органах,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и в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рыбной отрас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ределы региона выезжает не более 3-5 %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а ежегодный показатель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выпускников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75 %.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активно действует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Более четверти века развиваются отношения СахГУ с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Японии, США, Канады, Южной Кореи, Китая, ведется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п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созданию открыт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Летняя оздоровительная камп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хватит более 48 тысяч детей

На период школьных каникул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ткрываются 360 детских лагерей различного типа - стационарные, школьные, труда и отдыха, палаточные и профильные. Для сравнения - в 2015 году таких площадок было менее 300.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на совещании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где обсуждался вопрос проведения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й кампании для детей в 2018 году.

В регио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звитие сети детских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этом году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традиционно будут работать 4 стационарных лагеря - «Чайка», «Лесное озеро», «Юбилейный» и «Юны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 Кроме них в областной реестр центров отдыха впервые включены част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 загородный стационарный лагерь отдыха и оздоровления «Восток», лагерь днев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на базе Дома культуры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 и профильный языковой лагерь «КБ Бридж».

- Например, в «Юбилейном» и «Лесном озере» в период летних каникул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по пять смен. Стоимость путевки на 21 день пребывания в первом из лагерей составляет 41 089 рублей, во втором - 54 600. Однако благодаря льготам родители оплатят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6 253 и 8 190 рублей. Цена путевки в «Чайку», где дети будут отдыхать четыре смены, - 57 435 рублей, родителям она обойдется в 8 615 рублей. Родители приобретают путевки всего за 15 процентов от общей стоимости. Для детей из сем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ыделяются бесплатные путевки. Такая льгот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Елена Бабина.

В конце июня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распахнет свои двери восстановленный три года назад лагерь «Сахалинский Артек».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для 460 ребят здесь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пять двухнедельных профильных смен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й, спортив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 эколог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по региональной квот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лучило и бесплатно предоставило всем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210 путевок во всероссийские детские центры «Океан», «Орленок», «Артек», «Смена». Оплаченный родителями проезд к местам отдыха и обратно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компенсирован. Семьям, находящим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тратить личные средства на эти цели и вовсе не придется. Расходы сразу же на себя возьмет областная бюджет.

Третий год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отдыхать и оздоравливаться в лагерях Республики Крым. Первая сотн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улетела на отдых 2 июня. До конца летних каникул на

берегу Черного моря смогут отдохнуть еще 300 ребят.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сейчас дополнительно закупает 400 путевок на пятую летнюю смену в крымские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лагеря.

На совещании была также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изуч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круглогодичного отдыха в Крыму детей из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них месяцев различными формами отдыха, оздоровления и занят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будет охвачено более 48 тысяч школьников. Из них - около 16 тысяч ребят, оказавших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 этом году на проведение летней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й кампании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естных бюджетов в совокупности выделено 762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Франци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Об этом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член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аявила посол Франции в России Сильви Берманн. Отметим, что госпожа Берманн прилетела на Сахалин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членов Франко-Российской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Э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роительной и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ей, предприятий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других компаний.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они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профи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В планах гостей посещение круп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объе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регион,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щийся по ряду показателей. Одно из наших главных достижений - улучшени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 Отметил в своей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 Мы уделяем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 В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ет три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одна из которых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развитии туризма.

Сильви Берманн выразила надежду, что в ходе своего визита ей и членам делегации удастся определить конкретные проекты и направления совмес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озможно, их дальнейшее обсуждение продолжится в рамка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котором посол тоже планиру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Как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Франко-Российской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Павел Шинский, у организации довольно большие и планы в облас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Возможно,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шагов станет привлечение в регион членов подобных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ых палат,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Японии, Китае и Корее. Они, по мнению Шинского, лучше знают специфику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и этом гендиректор считает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достаточно комфортным местом для бизнеса и надеется увидеть перед собой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партне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держивают молодежн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В трехдневном форуме,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молод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рактически из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Японии и Китая.

Это единственна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лощадка, где по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ведения собственного бизнеса смогл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Как рассказал специалист отдела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и туризма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лексей Нам, спикерами форума стали действующ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з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Казани, Владивостока. Они рассказали о собственном опыте продвижения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новых бизнес-моделях, современных реалиях российского и зарубежного рынков, экспорте и импорте товаров из-за рубежа, определении целевой аудитории, тайм-менеджменте, финансовом учете. В качестве одной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форума - создание клуба молод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тран АТР.

Не случайно в эт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лось под эгидой федер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бизнес-форума «Молодо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России». Поддержка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нашей стране является национальной целью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4 год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указ был подписан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деляется повышенное внимание созданию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бизнес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около 28 тысяч субъектов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Поддержку сахалинск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оказывают 3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ахалинский фонд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Помощь получают и молод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Только за прошлый год на создание и развитие бизнеса они получили 204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субсиди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министерст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야간 특별관람'으로 느끼는 한여름 밤의 고궁 정취

6~7월 매월 마지막 2주간 경복궁·창경궁 야간 특별관람…실내악 공연도 펼쳐져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6월 5일,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한여름 밤의 아늑한 고궁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경복궁과 창경궁의 여름 야간 특별관람'을 6월에서 7월까지 매월 2주간(3~4번째 주)씩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름 야간 특별관람은 경복궁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창경궁은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이며, 관람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입장 마감 오후 9시까지)이다. 두 궁의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

1일 최대 특별관람 인원은 경복궁 4,500명, 창경궁 3,500명으로 제한되며, 일반인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한 반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장구매와 전화예매,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한복 착용자의 경우 경복궁은 하루 700명, 창경궁은 하루 300명에 한해 사전 인터넷 예매한 경우에만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관람객은 관람 당일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해야 한다.



예매는 '옥션 티켓'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하며, 6월 야간 특별관람은 6월 8일 오후 2시에, 7월 야간 특별관람은 7월 13일 오후 2시에 예매가 시작된다. 일반인 유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4매, 한복 착용 무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만 65세 이상 인터넷·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 확인 후 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하면 된다.

관람료는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창경궁 1,000원)료와 같으며,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장애인 각 50명에 한해 적용돼 사전에 매 없이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한편, 여름 야간 특별관람 기간에는 아름다운 우리 전통가락을 담

은 국악 실내악 공연도 펼쳐진다. 6월에는 경복궁 수정전에서, 7월에는 창경궁 통명전에서 오후 8시에 공연이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여름 야간 특별관람을 통해 여름밤의 정취를 가득 품은 고궁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국민이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름야간특별관람전체일정및행사내용은 경복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 창경궁 누리집(cgg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경복궁 ☎02-3700-3900 ~1, 창경궁 ☎02-762-9515, 4868 ~9)로 문의하면 된다.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놀이와 장난

보통 장난은 순우리말처럼 생각하지만 한자어 '작난(作亂)'에서 온 말로 알려지고 있다. 즉,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장난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면 장난이 끝난 후의 모습은 무척 복잡하다. 흥장난을 하고 들어온 아이의 옷을 생각해 보라. 엄마는 옷을 털고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만 신발이며 양말이며 옷가지에서 흩어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한 움큼이다.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다. 장난의 필수품은 장난감이다. 아이들을 다루기 가장 힘들 때가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아이들은 장난감에 극도로 집착한다. 놀고 나서 장난감을 잘 정리하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 장난감을 잘 정리할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을지도 모른다. 장난이라는 게 그렇다. 장난은 어지럽히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즐거운 것이다. 장난을 치고 나면 재미있다. 그런 점에서 장난은 놀이와 통한다.

놀이는 노는 것이면서 동시에 연습이기도 하다. 단순히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일을 미리해 보는 교육인 셈이다. 아이들의 소꿉놀이가 대표적이다. 소꿉놀이를 통해 심각한 부부관계나 살림살이를 배우기도 한다. 육아도 소꿉놀이에 들어가 있다. 노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보통 부모를 모방한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의 소꿉놀이를 보며 깜짝 놀라기도 한다. 그동안 자신이 하였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저런 것까지 연습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쟁놀이다. 아이들의 손에 칼, 활, 총이 들려 있다. 서로 죽이고 논다. 물론 진짜가 아니기에 깔깔 거리는 하지만 놀이가 연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끔찍하다. 점점 전쟁놀이가 없어지고 있는 느낌도 든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쟁놀이가 가장 신나는 놀이였다. 집집마다 장난감 총과 칼이 있었다. 탱크와 폭격기도 중요한 장난감이었다. 그럼 술래잡기, 숨바꼭질은 무슨 연습을 하는 것일까? 궁금하다.

놀이는 단순히 유희이거나 체력단련인 경우도 있다. 협동심이나 자립심을 기르는 경우도 있다. 물론 넓게 보면 다 교육이다. 고무줄놀이나 공기놀이, 윷놀이 등도 모두 그렇다. 어쩌면 예전에는 전쟁을 위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놀이가 더 필요했을 것이다. 살아가는 현실이 그랬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놀이는 대부분 스포츠로 바뀌어 있다. 펜싱, 검도, 양궁, 사격, 레슬링, 유도, 태권도 등 많은 스포츠가 자기 단련이나 전쟁 교육이 주목적이었다.

놀이는 즐거운 유희다. 하지만 장난은 종종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아무래도 어지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한 장난은 위험하다. '장난치지 마!' '그걸 장난이라고 해?'와 같은 표현에서 장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장난도 정도껏 해야 한다. 그래서 '장난이 아니다.'라는 유행어도 생겨났다. 장난으로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장난 중에는 행동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도 있다. 언어유희라고도 하는데 요즘엔 '아재 개그'의 주 소재이기도 하다. 한편 말장난이 깊은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서로를 자극하여 끝내 장난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 장난은 하면 안 된다. 장난이 폭력이 되고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 남북, 북미 관계가 그렇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다. 장난과 놀이를 보며 느낀 요즘의 단상이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한식

한식은 문화다! 한식은 건강과 웰빙을 지향하는 음식으로 세계 식품소비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양한 한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계란말이

조선후기 조리서인 『주찬』의 계란병에 소개된 음식 중 계란말이와 비슷한 요리가 소개되어 있다. “반철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얇게 부친다. 어육,초피,생강을 섞고 적당히 간을 맞추어서 만두소처럼하여 더울 때 싸서 가장자리를 여미고 생강과 파를 섞은 초장에 찍어먹는다.” 이다

1800년대 말 조리서인 『음식방문』에도 계란말이와 유사한 계란 느르미라는 음식이 나온다.

“계란을 그릇에 깨 놓고 소금 조금 넣어 매우 저어 한 술 떠노코 얇게 늘여 채 어리치 아니하여서 만두소처럼 만들었다가 길죽이 늘어놓고 말아 두 끝 눌러 만이 부쳐 두끝을 엮정하여 꼬치에 끼워 즈을 동아느름 미쳐럽 하라”

돌돌 말린 모양에서 이름을 따 온 계란말이는 만들어서 반찬으로 먹거나 길게 썰어서 김밥 속에 넣기도 한다. 계란말이를 만드는 방법의 단순하지만 곱고 아름다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요리이기도 하다. 달걀을 깨뜨려 불에 담아 젓가락으로 거품이 나지 않게 저어준 후 설탕과 소금, 다시마 조각을 끓여서 식힌 물을 계란에 넣어 체에 내려 달걀 물을 만들어 준다. 약한 불에 팬을 올려 식용유를 두른 후 팬이 충분히 달구어지면 달걀물을 얇고 고르게 퍼 두르고 약간 익기 시작하면 한쪽 테두리부터 젓가락으로 살짝 집어 네모지게 접어가며 돌돌 말아준다.

이 때 취향에 따라 모짜렐라 치즈나 깻잎, 김을 올려 돌돌 말면 색다른 계란말이를 만들 수 있다. 때로 입맛에 따라 계란말이에 케찹을 곁들이기도 한다. 계란말이의 모양을 좀 더 예쁘게 만들고 싶다면 계란말이가 식기 전에 김발에 계란말이를 올려 말아서 형태를 잡아주면 된다. 요즘은 계란말이용 팬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어 처음 만들어 보더라도 쉽게 계란말이를 만들 수 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동서고



금을 막론하고 서민들의 영양식으로 손꼽혀 왔다. 달걀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까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는 우수한 식품 중 하나로 높은 영양가에 비해 에너지가 낮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영양식품이다. 특히 양질의 단백질로 성장기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달걀은 그 인기만큼이나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디저트 등 다양한 요리와 재료에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다. 달걀로 만든 요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달걀 후라이가 아닐까 싶다. 어릴 적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혹은 도시락의 하얀 밥 위에 달걀후라이가 올려져 있으면 행복했었던 시절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던 지난 시절, 소풍처럼 특별한 날에는 삶은 달걀은 별식이었다. 그러나 계란후라이와 삶은 달걀의 수준을 넘어서 뭔가를 조리하면서 어머니의 정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계란말이일 것이다. 길쭉한 모양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밥 속재료로 빠지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돌돌 만 것을 한입 크기로 썰어 세워 나란히 담아 놓으면 노란 색 계란 속에 박힌 색색가지 당근, 파, 양파 등의 재료가 어우러져 아름답기 짝이 없다. 이 계란말이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 반찬 제1호가 된다.

최근에는 이 계란말이도 진화하여 식당에서 팔리는 안주용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도시락반찬메뉴였던 것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계란말이가 이제는 대표적인 한식당 메뉴가 된 것이다.

(<코리아.넷>에서)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취학 전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할린 여성 14%가 개인사업 벌이길 희망

사할린주 고용노동청은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취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전문적인 직업교육, 사회적 보호조치, 아동 돌봄기관의 협력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를 설정하는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사할린주 각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15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여성들 절반 이상(60.5%)은 무역, 서비스, 보건, 교육, 회계, 보험, 국가(지방) 공무원, 건축, 수선, 농업 등 기타 분야 또는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다. 여성의 37.3%는 실업자이며 2.2%는 재학 중이다.

총응답자 중에 30%는 취업 전에 직업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이들 중 48%의 여성은 자신의 전공에 따른 전문적인 재교육을 원하고, 31%는 새 직업을, 응답자의 21%는 자신이 지닌 전문성을 향상시키길 표명했다.

여성 응답자의 14.3%는 소규모 자영업이나 창업을 원했다.

사할린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2014-2020년간 사할린주 채용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게 자질향상과 자격회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을 보완하고, 자격을 갖추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과 연관된 생활비, 교통비 보조금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사할린 주 고용노동청은 전했다.

14% сахалинок, воспитывающих детей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хотят открыть свое дело

Агентством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опроса женщин, воспитывающих детей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Цель опроса — определение потребности женщин 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гибких формах занятост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обучении, мерах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одействии в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смотра за детьми.

В опро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150 женщин, проживающих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60,5%) из числа опрошенных женщин находятся в трудовых отношениях и заняты в сферах торговли, сервис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финансов, страх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униципальной) служб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емонт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Не работают 37,3% женщин, 2,2% — учатся.

Пройт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перед выходом на работу готовы 30% от всех опрошенных из них: 48% желают пройт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переподготовку по имеющейся профессии, 31% — получить новую профессию, 21% респондентов выразил желание повысить квалификацию по уже имеющейся профессии (специальности).

14,3% опрошенных женщин хотят создать малое предприятие или организовать самозанятост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грамма "Содействие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2014-2020 годы",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женщинам, находящимся в отпуске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ить новую профессию 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по различны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программам, необходимым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ли повышения своей квалификации, а также компенсирует расходы на проезд и проживание, связанные с прохождением обучения, сообщает сахалинское агентство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정 정

새고려신문 2018년 6월 1일호 <귀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고, 이중국적도 인정>이란 2면 기사에서 “전공은 헌법이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문장에서 동경대학을 경도대학으로 정정합니다. (본사 편집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ю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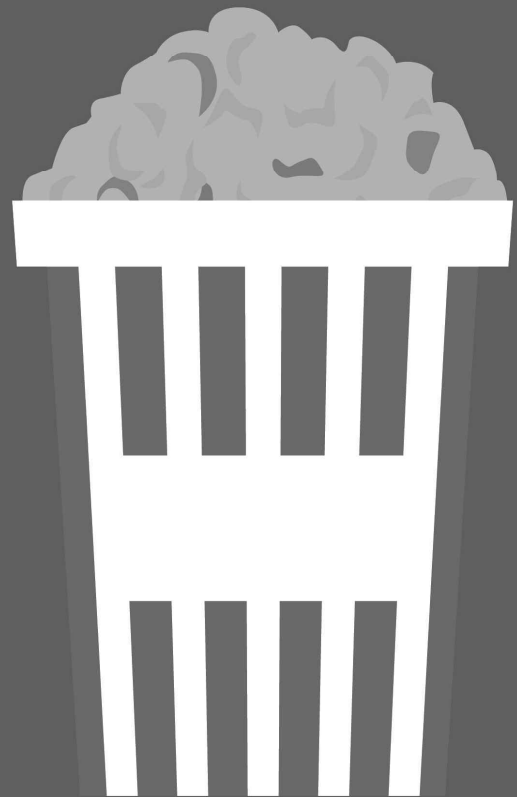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ав(주필) 배 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